

郭尙勳議長의

「아이젠하워」美國大統領 歡迎辭

美合衆國大統領 「아이젠하워」閣下 貴賓 그리고 議員同志여러분 오늘 自由世界의 偉大한 指導者요 世界平和의 偉大한 象徴이신 大統領閣下를 이 자리에 모시게 되었음을 本人은 다지없는 榮光으로 재각하는 바이며 모든 韓國사람의 이름으로 歡迎의 뜻을 表하는 바입니다

閣下는 일찍기 一九五二年 겨울 大統領으로 當選되시자 곧 이땅을 訪問하시어 平和具顯에의 巨步를 더하셨으며 그後 八年間 「平和롭고 民主的이며 統一된 韓國」의 實現을 爲하여 끊임없는 援助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특히 지난 四月 自由韓國人이 專制와 腐敗에 抗拒하는 鬪爭에 나섰을때 閣下와 閣下의 政府가 보여준 따뜻한 友情은 十年前 共産軍南侵時에 보여준 그것과 더불어 永久히 韓國사람의 가슴에 아로 새겨질 것입니다

實로 閣下의 政府의 賢明하고 率直한忠告와 激勵가 없었던들 이 나라民主主義는 아마 消滅했었을지도 모르는 일이었으며 十年前 우리 두나라 青年이 이땅에서 흘렸던 거룩한 피는 헛된것이 되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나 神의 保佑下에 그리고 閣下의 도움으로 이 半島의 自由는 되살아났고 政治 經濟 社會等 各分野에서의 民主的 改革이 着着 斷行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偉大한 瞬間에 友邦의 偉大한 指導者를 맞는 우리의 기쁨은 表現할 길이 없는것입니다

끝으로 「半自由 半奴隸의 狀態로서는 살수없다」는 韓國의 悲劇을 終熄시키는데 閣下의 知慧와 決斷이 있기를 거듭 懇望하는 同時 閣下의 健康과 旅路의 平康을 衷心으로 비는바입니다

檀紀四二九三年六月二十日

民議院議長 郭尙勳